

전주 한옥마을 '한눈에 본다'

역사·유래 등 변천사 담은 '역사관' 건립 추진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유래, 변천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역사관이 조성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지로 보존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려줄 '전주한옥마을 역사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역사관을 은행로에 위치한 옛 창작예술공간의 한옥 2개 동을 리모델링해 한옥마을의

역사와 유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전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진입로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은 한옥마을역사관과 연계한 쉼터이자 놀이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전시관 1동에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전주의 도시형성과 한옥마을,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옥마을을 주요시설과 공간변화 등 전주한옥마을 변천사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전시관 2동에는 전주한옥마을 보존정책, 이에 따른 한옥마을 주민들

과의 갈등 및 해소, 한옥마을의 위기와 극복 등 오늘날의 한옥마을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마을역사관 진입로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이자 놀이터로 조성해, 자동차가 비워진 공간을 사람과 문화콘텐츠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한옥마을 역사관이 조성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참 매력을 알려, 전주가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위에 세

워진 건물과 도로 등 도시경관만을 보고 지나쳐가던 관광객들에게 전주한옥마을의 유래와 역사 등 정체성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역사관 건립을 검토해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을 역사관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의 유래와 역사 가치 등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 한옥마을들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주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전주시는 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경조교통신공단 전북지사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거리에 자전거 안전용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참여 공동체 80여개 공개모집

전주시는 '제1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 참여할 기관·단체·동아리·공동체 80여개를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참여과정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제공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즐거라! 평생학습'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한마당 행사를 함께 꾸려갈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문해교육과 사회복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관련 평생학습기관, 단체·동아리·학습공동체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홍보체험관' 운영 부문 등이다.

참가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평생학습관(063-281-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기자

전주시, 맑은물 3년연속 '최우수'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시험평가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5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맑은물사업본부는 17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반쪽'을 획득하고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는 수질검사 분석체계와 분석

장비, 분석능력 모두 국내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최상위 검사기관 선정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도물의 안전성 검증·확보를 위한 전주시 수질관리행정에 대외적 공신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국내 최고의 먹는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도물을 음용한다는 신뢰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국내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전주시, 미국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전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의 미국지역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가대상은 전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으로 9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8월10일 일정으로 뉴욕, 마이애미, 달라스를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 및 바이어를 직접 찾아가는 개별 미팅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를 갖는다.

파견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조사 검토 등을 거쳐 현지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전주시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사업은 전주시와 중진공 전북본부 협업으로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견수요가 높았던 미국지역을 선택하는 등 기업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북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6~7)으로 하면 된다. /인재용기자

부안서, 여고생 25명 성추행한 체육교사 구속영장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 한 여고에서 25명을 성추행한 체육교사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체육교사는 오랜기간 해당 학교에 근무하면서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진행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25

명이다. 경찰관계자는 "해당학교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7일 추가 설문조사와 추가 경찰조사를 통해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첫 소환조사에서 체육교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상민 기자

농기계 사고에 불... 1억4천만원 피해

5일 오전 7시 44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 노모(78)씨의 농기계 사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억4천만원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노모씨의 사고를 태우고 인근에 있던 이모(62)씨의 철물점에 옮겨 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발화 요인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이상민 기자

안전한 자전거 타기 함께 만들어요

교통안전공단, 전주시에 사고 예방 위한 안전용품 전달

전주시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시는 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경조교통신공단 전북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용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인 자전거 안전모 250개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시는 전달받은 안전모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과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주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대중교통 이용자가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녹색생태교통수단인 안전한 자전거 타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대행진 및 자전거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도 전개해왔다.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또, 자동차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배려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